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6)

亡名法師息心銘 (망명법사식심명) ②

關爾七竅 閉爾六情 莫礙於色 莫礙於聲
관이칠규 폐이육정 막규어색 막창어성
閉聲者覺 見色者盲
문성자용 검색자맹
一文一畫 空中小納 一技一能 日下微塵
일문일화에 공중소에 일기일능 일하이고름
英賢才藝 是爲塵勞
영현재예 시위우폐

안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억누르면 밖으로 원한과 미움만 짓는다.
혹 입으로 떠벌리고 혹 글을지어 사탐으로 하여금 명예를 종용롭게 하면 또한 매우 추한 일이다.
법부들은 이를 좋은 일이라 하나 성인들은 이를 허물이라 이른다.
칭찬받고 좋아하는 것은 잠시요 슬픔과 근심은 길다.

畏影畏迹 逾走逾劇 端坐樹陰 迹滅影沈
외영외역 유주유극 단좌수음 적멸영침
厭生患者 隨思隨造 心想若滅 生死長絕
염생환노 수사수조 삼상야멸 생사장절
不死不生 無相無名
불사불생 무상무명
一遺虛寂 萬物齊平
일도허적 만물제평
일도허적 만물제평
何勝何劣 何重何輕
하승하열 하중하경
何貴何賤 何尊何榮
하귀하천 하옥하영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발자취가 두려워아주 멀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더 쫓아온다. 단정히 나무 그늘에 앉으면 (번뇌망상의)자취도 그림자도 사라지리라.
생을 싫어하고 늙음을 걱정하여 생각

너의 일곱구멍(얼굴의 눈·귀·코·입)을 막고 육정(안비설신의)을 달아서 색을 엿보지 말고 소리를 듣지말라.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먹고 색을 보는 자는 장님이되니(듣되 듣지 못하고 보되 보지 못함)
(뛰어난) 글재주와 기예는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기에 불과하고 기술과 재능은 태양아래 의로운 등불이라 영웅·현사·재주꾼은 다 아리석고 헛된 것이다.

捨其擘擘 耽溺空疏 譚焉易奔 心猿難制
사기수박 탐닉공수 탄음이분 심원난제
神機易役 刑必損喪 罪惡難逃 修念永泥
신기이역 형필손폐 사경종미 수도영니
英賢才能 是日樛樛 其德不弘 其德不弘
영현재능 시일훈훈 오졸선고 기억불홍
名厚于德 其高凌薄 塗泥汚卷 其用不恒
명후행박 기고속봉 도서오권 기용불항

미혹에 빠지면 수도의 길 영원히 막혀

교만한 마음 품고 남 대하면 미움씩터

순박함(천진함의 뜻)을 버리고 여색과 결별 아름다운 빠져들면 식미는 날뛰기 십상이고(의식이 말처럼 뿔) 마음 원승이를 제어키(마음이 원승이처럼 깨물어 뱀) 어렵다.

정신이 이렇듯 고달퍼지면 물도 반드시 망가져나니 샷된 길은 끝내 미혹일 뿐이라 수도의 길은 영원히 막힌다.
영현재능이 다 어둡고 심난한 것이다. 이 더럽고 치졸한 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해 보았자 그 덕은 크지 못하다.

이름은 두터운데 향함이 없으면 (덕이)높다고 해 보았자 잠시 잠깐에 무너진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잠시 펼치는 듯 하다가도(뜻대로 되는듯 하다가) 쇠퇴할 때는 말아들어야(뜻대로 안됨) 하나니 그 공용이 항상 텅텅치 못하다.

內懷慙怯 外致怨憎
내회교벌 외치원증
惑欲於口 或盡於手 要人命壽 亦孔之醜
혹담어구 혹사어수 요인령에 역공지후
凡謂之吉 聖謂之咎
범위지길 성위지구
賞斷當時 悲憂長久
상단당시 비우장구

따르고 지음을 따르니 한 생각 사라지면 생각이 길이 끊어진다.
죽지도 나지도 않으며 모양도 이름도 없느니라.

한 도가(마음길이) 텅비고 고요하여 만물이 평등하면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으며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우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여 무엇이 욕되고 무엇이 영화로우라.

澄天滄淨 鐵日懸明
정천과정 교일침명
安夫坐嶺 圍彼金城
안부대령 고피금성
敬能賢哲 斯道利貞
경이현철 사도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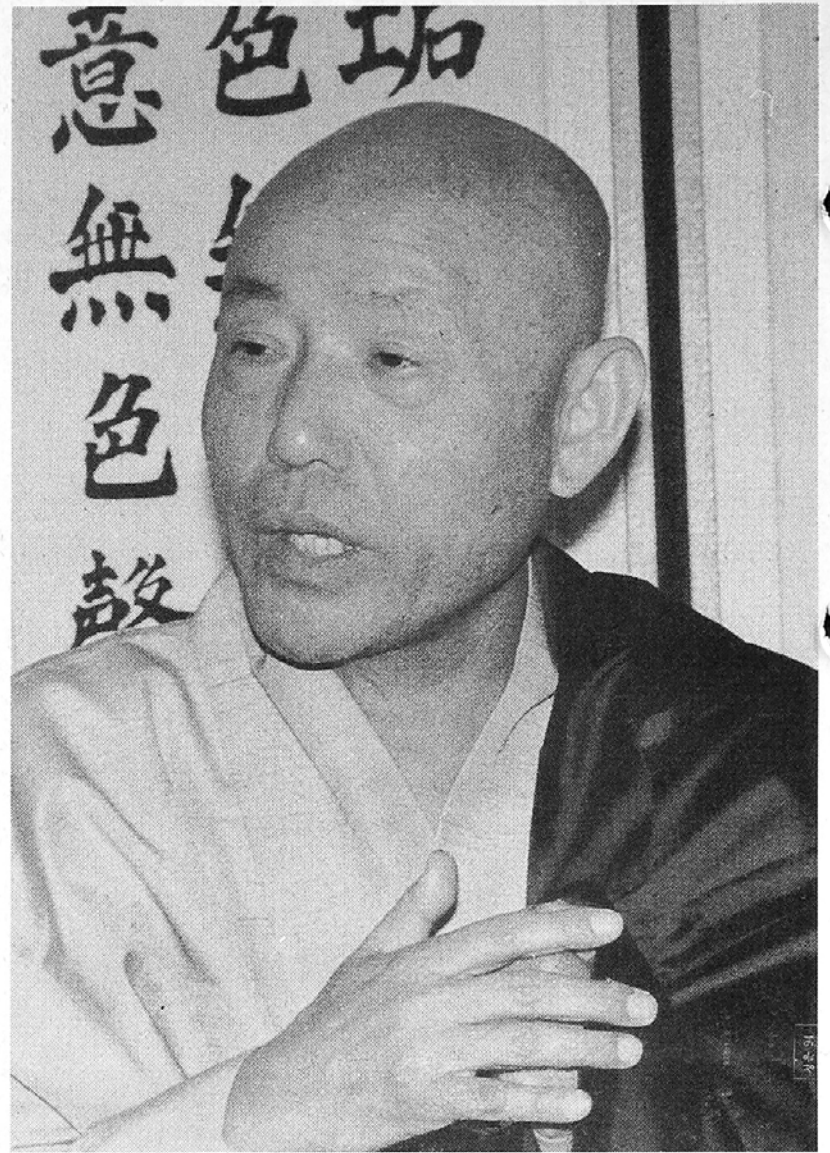
맑은 하늘은 깨끗함을 부끄러워하고 밝은 해는 빛을 부끄러워 한다(맑은 하늘은 스스로 깨끗하다 밝게 하고 밝은 해는 스스로 밝다고 으시대지 않는다)
(고로 그 텅비고 고요하면) 편안하기가 무릇 태산준령같고 견고하기가 저 금성철벽이로다.

공경히(그대들) 어질고 슬기로운 이에게 불이노니 이 도(불교)는 이롭고 바르니라.
龍眼

“부처 이루는 다섯가지 길

지 상 범 석

도문스님 대각사 조실



약력

- 1935년 전북 남원 출생
62년 통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분황사 마곡사 백양사 내장사 대각사주지 역임
현재 인도성지를 비롯 불교성지 복원에 주력
저서로 불교인의 365일 등 다수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모든 선을 만들어 행하라
그 마음을 청정하 하여 깨달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 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불교입니다.
불교 오대수행은 불사 수행·주력 수행·간경 수행·염불 수행·참선 수행입니다.

첫째로 불사수행이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구경의 목표를 불사에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연법이든 근본법이든 간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덕·자비·지혜입니다.

불사는 복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복전은 경전(經田) 은전(恩田) 비전(悲田)인 삼복전(三福田)이 있습니다.

경전불사 수행은 불·법·승 삼종삼보전에 귀의하여 공경·공양·예배·찬탄·참회·발원하는 것이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은전불사수행은 부모와 스승 어른과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 곧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전불사수행은 자비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 닿는 범위내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어려운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동정해서 구제하여 주면 한량없는 복의 과보를 받으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에 씨앗을 뿌리면 씨이 돌아나는데 비유하여 복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생과 사가 있구나
마음이 없으면 생·사도 없는 것이구나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었음이니
나는 부처님의 노래 조사의 춤 추리라

둘째로 주력수행은 진언다라니의 작용인 것입니다. 진언은 진실한 말이고 다라니는 총지·능지·능차 인 바 선법(善法)을 모두 지녀서 흠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므로 총지(總持) 능지(能持)라 하고 약법을 막아서 일어나지 않게 하므로 능차(能遮)라 하는 것입니다.

다라니 힘의 작용을 네가지로 나누어 말하니 법다라니 의다라니 주다라니인 다라니입니다. 법다라니(法陀羅尼)는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잘 기억해 지니고 잊지 않음인 것입니다. 의(義)다라니는 모든 법의 한량없는 것을 모두 지녀서 잊지 않음인 것입니다. 주(呪)다라니는 선정(禪定)에 의하여 비밀어(秘密語)로써 부사의 신묘한 영험이 있음인 것입니다. 다음은 인(忍)다라니이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경지에 안주하여 있으면서 인지(忍持)하여 잊지 않음인 것입니다.

다라니는 한량이 없고 가이 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 없는 착한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다라니라 함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 혹은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잊지 않고 뜻을 분별하며 우주의 실상에 결합하여 수 많은 법문을 보존하여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문(法文)을 번역하지 않고 음 그대로 열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에 전체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비밀어라하여 다른 이에게 비밀히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열송하는 이는 한량없는 말을 들어도 잊지 아니하며 끝없는 이치를 알아 학문의 혜택을 입고 모든 장애를 벗어나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다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법문의 짧은 귀절을 진언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귀절로 된 것을 다라니 또는 대주(大呪)라 하는 것입니다.

진언밀교에서 가지기도(加持新禮)하는 작법인 수법(修法)에는 식재(息災) 증익(增益) 경애(敬愛) 조복(調伏)의 4종류가 있습니다. 후 구소(狗召)를 더하여 5종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을 위하여 가지기도를 할때에 기도하는 경우에 따

각 절대 신앙의 본존을 달리하며 단을 만들어 호마를 태우며 진언 다라니를 열송하고 손으로 결인(結印)을 하며 마음으로 그 본존의 상상(想像)을 관상하는 주력수행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혜제일인문수리보살의 눈이요
행원이 제일인 보현보살의 발이라
사람이 오고 가면 그 인사가 분명하니
불법을 알고자하는가 선지식에 가서 물어보이라

셋째로 간경수행은 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문을 소리없이 눈으로 보고

“극락세계” 꼭 가고자 원하는 분만 모십니다

자기가 걸치고 다니는 누더기 옷 속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구걸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내세워 가르치는 법화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의 우리들을 직접 나무라고 계시는 듯한 교훈입니다.

뉴코아 백화점(고속터미널 앞) 지하 1층 한국 삼베 특설 코너에서 순수한 우리 한국 삼베로 '극락왕생 옷'(삼베 수의)을 만들어 인연을 맺어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신문·방송을 통해 전국 어디에나 널리 알려졌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에 오시면 언제든지 극락왕생 옷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큰일을 당하고서야 병원으로 장의사로 허겁지겁 초상을 치루어내던 장의 문화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백화점의 용단에 감사 드립니다.

올 윤팔월에는 삼베 수의를 직접 마련하셨거나 아랫사람에게서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틀림 없이 사시는 동안 무병장수하실 것입니다.

특히 치매증(늙어서 발생하기 쉬운 노망기) 없이 밝게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는 윤팔월만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윤달이 들어 있는 해는 일년 중 어느 때라도 장만하시면 그 효험이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에 묶여 있는 불교 법당에 머물고 있는 불교 종단에 매달려 있는 불교에서 훌쩍 벗어나 울사도·법사도·선사도 아닌 야승을 자처하며 제3장소인 백화점에서 대심 스님인 제가 직접 붓글씨로 가훈, 교훈, 사훈 등을 써 드리고 있는 일은 이미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극락왕생 옷과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께는 비석에 새길 글씨도 지어서 써 드리며 부처님 염불명호도 갖추어 써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사시다가 떠나실 때는 꼭 차려 입고 돌아가시던 수의의 삼베가 바로 누더기 속에 감추어진 값진 우리 민족의 보물이라면 얼핏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삼베 국보삼 그룹에서 석유보다도 지하자원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21세기 만능의 산업소재가 바로 삼베라는 것을 입증시켜줬습니다만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토록 힘들어 개발해 온 기술을 오죽했으면 극락왕생 옷이라는 이름으로 삼베 수의를 제작했겠습니까? 극락 세계도 죽고 난 뒤라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까닭인지 극락 세계 왕생의 길을 열어 드린다고 장담을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 속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모르는 채 구걸하고 사는 것을 삶의 방법으로 삼겠지만 그 값진 보물을 꺼내 손 안에 쥐었을 때부터는 전개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극락 세계는 물질로써 최상의 장엄을 갖춘 안락의 세계입니다.

뉴코아 백화점 지하 1층으로 오셔서 극락세계 왕생길을 예약하시고 누더기 옷 속의 보물을 각자 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미 수의를 마련하신 분들께는 접수를 받아 극락왕생의 특별한 법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꼭 가고자 원하는 분에게만 왕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만일 왕생 발원 법회 회주 대심 합장
한국 삼베 국보삼 그룹 회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2 뉴코아백화점
대표 (02) 530-5000 / 직통 (02) 530-5050